***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8. 8.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7일(현지시간) 오후 대만 타이중(臺中)시 DFO(Dong Fang Offshore)社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최인규 LS마린솔루션 영업부문장, 폴린 첸(Polin Chen) DFO CEO**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마린솔루션, 국내 첫 해상풍력 지원 선박 사업 추진**  **■ 대만 DFO社와 MOU, ‘바다 위 5성급 호텔’ 선박 도입**  **■ 해상풍력단지 장기 체류 지원, 연내 해상풍력 사업 입찰 참여**  **■ 유지보수로 사업 확대, LS전선·LS에코에너지와 해외시장 공략**  LS마린솔루션이 대만 해상풍력 선박 전문업체 DFO(Dong Fang Offshore)社와 해상풍력단지 건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마린솔루션은 DFO의 해상풍력단지 서비스용 선박(SOV)을 용선하여, 연내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SOV의 국내 첫 도입 사례가 된다.  SOV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시 풍력 타워에 연결해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이다. 출항 후 10일 이상 바다에 체류하면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바다 위 5성급 호텔’로 불린다.  DFO는 대만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지원사업을 독점적으로 해 온 전문업체다. LS마린솔루션은 운용 노하우 등을 이전 받아 국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단지는 해안에서 10km 내외에 건설되어 인력이 매일 인근 항구에서 통근하였다. LS마린솔루션의 SOV가 도입된다면 수십 km 떨어진 건설 단지에서도 호텔급 서비스를 받으며 장기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회사 측은 “SOV 사업에서 선체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선박자동위치제어시스템(DP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LS마린솔루션은 독보적인 DP 시스템 선박 운용 경험과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어 선박 수리 등의 분야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LS마린솔루션은 향후 각 풍력 단지와 15~20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LS전선 및 LS에코에너지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